

시선

희망찬 새해를 열어 갈 두 가지의 힘



김 찬 술

대전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축년(辛丑年) 새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매일 같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달력 한 장 넘겼다고 크게 달라질리아 없겠으나 새해는 늘 새 마음, 새 다짐으로 맞게 된다.

새해 첫 달 1월을 영어로 재뉴어리(January)라고 하는데 야누스의 달을 뜻하는 라틴어 야누아리우스(Januarius)에서 유래했다. 야누스는 대개 두 얼굴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고대 로마의 아주 중요한 신(神)이다. 뒤통수의 얼굴은 과거를, 정면의 얼굴은 미래를 응시하는데, 이 두 얼굴은 지난 역사를 통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뜻한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새해로 들어가는 시간의 문(門)이라는 뜻에서 1월을 야누스의 달이라고 했고 새해 첫날, 야누스에게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

야누스가 가지는 과거의 얼굴, 즉 지난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평소 알던 세상은 사라지고, 미처 준비할 기회도 없이 불안하고 낯선 미지의 세상으로 거칠게 내몰렸다.

200년 동안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 바이러스가 아스카 문명을 사라지게 했고, 홍역과 흑사병까지 인류는 말 그대로 전염병과 사투의 역사 속에서 21세기에 또 한 번의 전염병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은 엄청난 지각변동과 함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2021년 소의 해, 어떻게

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 소는 12간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은 데다 성실한 동물이자, 빠른 석기와 청동기시대에 점을 치는 도구였다. 현재 백신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지만 백신(Vaccination)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기인한 것으로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최초 개발했다.

그러나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 연결하는 역량이라는 '회복탄력성'이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1차 창업에 도전해 90%가 실패하고 10%만이 성공하는데, 2차 창업을 하면 90%가 성공하고 10%가 실패한다고 한다. 1차 창업에 실패한 사람의 80%는 다시는 창업하지 않는 반면, 성공한 20% 사람들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지만,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성찰을 이뤄낸, 즉 회복탄력성이 큰 부류라고 한다. 누구든지 체계적인 훈련이 뒷받침된다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정조대왕의 겸손 리더십'이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개혁군주이자 세종대왕 이후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는 정조. 그는 즉위부터 하루 두 끼 식사만 했고, 떨어진 버선을 꿰매 신을 만큼 일반 사대부보다 검소하게 생활했다. 나라 재정을 아끼기 위해 궁내의 내시와 궁녀를 절반 가까이 줄였으며, 한양 일대의 군대를 통폐합, 군비도 크게 축소시켰다. 정조대왕은 소통을 중시했고, 국왕으로서 사적(私的)인 이익을 철저히 배제했으며, 누구보다 따스하면서도 측근들의 잘못된 추상같이 다스리는 위엄을 보여 주었다.(리더라면 정조처럼/김준혁 저)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는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우리 사회 전체는 '정조의 겸손 리더십'을 되새긴다면 진 켄 워드의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처럼 용기 있게 진정한 목적의식으로 앞을 향하고, 이웃의 집을 나누어 들고 함께 길을 찾는 희망의 새해가 되지 않겠는가?